

## 꿈꾸는 자 요셉

창세기 37:1-11

앞으로 몇 주 동안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꿈과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아마 요셉이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삶에 위기를 경험하지만 어떠한/어떤 종류의 위기를 당하였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삶의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어려운 상황을 거뜰하게 이겨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꿈을 꾸는 자가 오는 도다.”(Here comes that dreamer)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구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 비전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만 하는 말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라고 다 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75 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 나이 때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인데 말이죠. 또 하나님은 80 세 된 모세에게 찾아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꿈을 가지게 했습니다. 80 세 된 할아버지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이야기는 꿈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꿈꾸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 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본문 1-2 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을 보면 형제들과 똑같이 양을 치는 지극히 평범한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무슨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요셉에겐 다른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겐 의붓어머니도 셋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복잡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이해하기 어렵고 신기한 것은, 어떻게 아버지인 야곱 같은 사람에게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삶은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 집을 떠나 방랑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왔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란 환경이나 부모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고, 가정환경이 가난하고 복잡해도 우리는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요셉은 처음부터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죽, 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이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을 목격하고는 아버지에게 모두 일러바쳤습니다. 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 아량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본문 3-4 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요셉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네 명의 부인중에서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요셉을 누구보다도 더 챙겼을 것이라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형들의 시기과 질투, 그리고 가정 불화였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자라난 가정환경은 아주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꿈꾸는 자에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다른 각도로 야곱의 편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편애는 몹시 불편한 것이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줄 때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고 자라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 사랑은 진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언제나 편애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편애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애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 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17 세 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꾸는 꿈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 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심지어 부모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3년 후에 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요셉이 꾸는 이 꿈을 '절 받는 꿈'이라고 해석해 봅니다. 사실 이 '절 받는 꿈'을 요셉이 꾸고 난 다음, 그는 '아 하나님이 나를 절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절 받는 존재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겠구나.'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묵묵히 참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요셉은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시시하게 죄짓고 들어온 죄수가 아니다. 나는 절 받는 꿈을 가진 사람이야.' 그 결과 요셉은 애굽과 당시 세계에서 만인이 우러러 보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자신이 만든 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 부자가 되고픈 꿈을 가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가리켜 '백일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비전' 혹은 '묵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 요셉 자신이 만든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요셉은 역경과 모함과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든 꿈,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황당무계한 꿈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십칠 세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해서 자신에게 이로울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이런 꿈을 꾸었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보나마나 욕 먹을 꿈이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것은 아마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 이야기를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만이 구원자라고 그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날이 갈수록 그 감동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다. 사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적어도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스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면서도 이 꿈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혹시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인간적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